

한국담배인삼공사충주원료공장준치건의 (안)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25 |
|----------|----|

발의년월일 : 1998. 9. 18.
발 의 자 : 김원석의원
 인

제안이유

- 황색잎담배 생산의 본고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충주원료공장을 담배인삼공사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폐쇄할 경우
- 잎담배재배 농가의 대폭적 감소에 의한 농가소득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
- 고품질의 황색잎 담배 생산 본고장인 충주지역 주민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하게 되며 연간 530억원의 잎담배를 생산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향토기업인 충주원료공장의 폐쇄는 불가하다고 사료됨.

주요골자

○ 내 용 : 건의서 참조

○ 발송처 : 재정경제부장관, 국회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, 담배인삼공사사장

담배인삼공사충주원료공장존치건의서

귀하

-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 및 「IMF구제 금융체제」의 국가경제 회생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()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(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어려워진 국가경제로 인하여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실직자가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에서도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여야 하는 중앙부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, 전국 황색 잎담배 총 생산량의 24%를 생산하고 있는 담배주산지인 충주원료공장을 담배인삼공사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폐쇄할 방침에 대하여 우리 22만 충주시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방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- 우리 충주지역은 지형적으로 중산간지역으로써 황색종 잎담배 경작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있어 품질이 좋은 잎담배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며, 현재 711농가에서 2,190톤을 생산 연간 132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.
- 또한, 충주원료공장은 1959년도에 설립 운영되면서 우리 잎담배 경작농가와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향토 기업으로써 열악한 지역경제에 연간 530억원을 기여하며 본 공장에서 가공되는 황색 잎담배를 미국, 터키 등 유럽 각국에 전량 수출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충주지역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공장입니다.
- 지금의 농촌지역 경제는 말로형용하기 힘들 정도로 피폐되어 농민들의 한숨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.
- 얼마전 소값 하락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도산하였으며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수많은 농민들이 부채에 허덕이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고 있는 가운데 황색 잎담배 생산의 원조격인 충주원료공장 폐쇄방침은 부당한 처사로 사료됩니다.

-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담배인삼공사 충주원료 공장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폐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22만 충주시민 전체의 뜻으로서 시민들을 대표하여 우리 충주시의회에서 충주원료공장 존치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.

1998년 9월 일

충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